



아주대학교 교수회

濁流淸論

제46호 2016년 11월 21일(월)

발행인: 이순일 / 편집: 편집위원회

■ 아주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이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주권자들을 위해 일할 권한을 빌려주었을 따름이다. 치욕적인 국정 유린 사태와 국가 체계의 몰락에 직면하여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위임받은 국민의 주권을 결단내고 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을 고한다.

무능, 무지, 불통, 기만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4년은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회복 불능 수준의 경제 침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국가와 개인 채무의 폭증, 세월호 참사 은폐와 위안부 졸속 협상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수 많은 실정으로 민생을 피폐시키고 사회를 파탄내면서도, 국가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대북정책, 반대 세력에 대한 종북 낙인찍기를 통해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인에 평등한 법의 지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하기는커녕 비선세력을 끌어들이고, 새누리당, 고위 관료, 정치 검찰, 보수 언론, 비리 재벌들과 공생의 먹이사슬을 만들어 공작정치로 안하무인의 통치를 일삼았다. 국정농단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권력이 위기에 처하자 후안무치하게 헌법 개정을 들먹이며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려 하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시킨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 철저히 조사 받고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위해 국정 농단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하며 비선 세력의 존재를 눈감아온 무능하고 불의한 청와대 관계자, 새누리당, 고위 관료들도 법적·도덕적·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표 정책과 국책 사업도 면밀하게 재검토되고 수사되어야 한다.

그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맡아온 검찰은 욕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정 유린 혐의와 정치·관료 시스템의 후진적 작동을 제대로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꼬리 자르기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되풀이된다면 검찰 역시 국정 파탄의 공범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유린 사태’는 한국 사회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면서도 비선 실세에게 치졸하게 아부한 대기업들의 저열한 권력 추종과 사리사욕 추구를 규탄한다.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고 “형광등 백 개의 후광” 운운하며 아부해 오더니 이제는 그 동안 보신용으로 쌓아두었던 음습한 자료들을 터뜨리기 시작한 보수 언론의 이중적 작태와 사악한 근성을 규탄한다. 소위 엘리트를 자처하면서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국정 유린의 물결에 편승한 권력 지향적 교수들을 규탄한다.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온갖 연줄을 악용한 후진적 이권 추구, 측근 정치, 과거를 신화화하는 향수 정치,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공적 토론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 체계의 전면적 재구성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순실 4년’의 망국적 농단이 야기한 국가존망의 위기를 마주하여 우리 아주대 교수들은 주권 행사의 무거움과 고귀함을 절감하며,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약한다.

주권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 유린의 공동 정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2016년 11월 9일

아주대학교 교수 247인 일동

고근하 김상대 김승범 김철환 독고윤 이수복 주동표 (이상 퇴직·명예교수 7인)

감동근 강경관 강명구 강병곤 강석윤 강신구 강지혜 강충권 강태민 강 혁 강희영 광명숙 구형진 권진보 권경난 권명희 권순정 권익진 김경래 김경일 김대중 김대희 김도식 김도영 김동근 김미란 김민규 김병곤 김봉철 김상배 김상인 김상현 김서용 김성욱 김성환 김수덕 김순선 김승주 김승현 김영길 김영진 김영태 김완석 김용기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용현 김유권 김유정 김은영 김은정 김은하 김장훈 김재훈 김재훈 김정호 김종식 김종엽 김준한 김지은 김창구 김태봉 김태승 김한성 김현아 김현욱 김형규 김형수 김혜숙 김호섭 김환명 나상신 남석현 노명우 노병희 류창호 문남식 문승재 문우진 문은표 문혜원 박구병 박동하 박만규 박보람 박상규 박상면 박성빈 박성용 박성진 박승설 박영동 박영무 박영욱 박영준 박용배 박재연 박지용 배상석 배형욱 백연정 백호기 서민덕 석혜정 선주성 손경아 손정훈 송근영 송영훈 송하석 송현호 신강현 신승수 신영석 신유섭 신종호 신진영 신희천 안광준 안성혁 양한순 양희석 엄동일 예영민 오경희 오동석 오세창 오하영 우현구 원제환 유문숙 유재석 유정훈 유학기 윤계순 윤대균 윤승현 윤태영 윤현진 윤호섭 이경원 이경호 이규상 이규인 이기근 이기정 이문구 이병훈 이보경 이복순 이상국 이상신 이석현 이선이 이수환 이순일 이왕휘 이원희 이윤제 이윤진 이재식 이재원 이재웅 이재호 이재황 이정일 이정태 이종수 이종찬 이종화 이주범 이지숙 이 진 이진희 이해영 이현환 이현서 이형천 이해경 이홍재 이환용 임석철 임선교 임승관 임은수 임재성 장병윤 장우진 장재락 장형윤 장혜영 정경원 정경훈 정대용 정수인 정의진 정재식 정태선 정홍섭 조봉호 조성란 조성을 조수진 조순행 조영호 조은주 조지만 조하연 조한범 조효정 주인수 차희성 채윤정 최고원 최기주 최명원 최영만 최영준 최용준 최용찬 최 원 최재영 최정주 최홍근 최희갑 하나영 하영화 한영수 한지형 한 호 허윤정 허준석 호정화 홍성연 홍 정 홍지만 황동선 황성임 황정원

(240명, 가나다 순)

I 강명구 교수의 특별 기고

박근혜: 박정희 신화의 소극(笑劇)적 종결자

행정학과 강명구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 룸>을 시청하다가 ‘이거 나라가 정말 큰 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속칭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의 버려진 태블릿 피스에서 찾아내었다는 수정된 대통령 연설문과 40여 개가 넘는 중요 국가 문서들의 존재는 한밤중 숙면에 익숙한 나를 두세 번이나 깨울 정도였다. 그 이후로 고구마 줄기처럼 깨면 켈수록 드러난 국정 난맥상들은 불과 몇 주 남짓에 국민적 상식이 되었을 정도니 여기서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좀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차고 넘치는 뉴스들의 해일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이 전대미문의 엽기적 헌정 유린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또한 어떠한 시대사적 의미가 있는가를 곰 작여 봄이 나올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 얼굴: 헌법의 권력구조와 개인 성품

좀 따분하지만 교과서 수준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우리나라의 으뜸 법인 헌법은 대략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국민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먼저 나라의 제1 시민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른바 외교를 비롯한 외치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과 계엄 등 각종 비상대권을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면권 등을 사용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가 경영의 책무를 지녔다. 한 마디로 헌법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통치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입법과 사법에 상당한 견제권한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현실정치에 있어 대통령이 이른바 ‘제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흔히 열려있다.

우리네 경우,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도 헌법이지만 지역주의에 기댄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소선거구제도에 기인한 바 더 크다.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에 근거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로 인하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하는 기득권적 양대 정당을 만들어 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속 정당의 1호 당원으로서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좌지우지할 때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면 국회는 청와대의 분소(分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정치 제도적 요인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엽기 막장 드라마를 설명하기 힘들다. 막강한 권한의 일인집중이 제도화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지도자적 자질이 헌법 못지않게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제의 본산이랄 수 있는 미국도 다를 바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현 대통령은 무지, 무능, 불통으로 점철된 성격의 소유자다. 한때 나는 ‘박근혜=무능한 박정희’(즉, 능력은 없으면서 권력은 탐하는) 정도로 이해하였으나 고백하건대 이는 상당한 판단착오였다. 판단컨대, 현 대통령은 성장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과 사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아예 없는 인격의 소유자이다. “나는 국가와 결혼하였다.”는 그의 언명(言明)이 한때는 ‘대통령은 싫든 좋든 공적 인간이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지금 보니 그 말은 ‘내가 곧 국가’이니 공과 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사람에게 대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들이대니 그 말의 당사자가 어떤 정치적 고초를 겪을지 뚜렷해지는 것이다.

변곡점에 이른 대한민국 보수의 허상

그렇다면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한국의 보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옹립(擁立)했느냐’는 의문이다. ‘정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일까? 나는 이 변명이 시중의 보수적 갑남을녀(甲男乙女)들에게는 적용 가능할지 몰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온갖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엘리트 보수층들에게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본다. 나는 바로 이 지점이 박근혜 게이트를 해석하는 매듭점이라고 판단한다. 말이 좋아 호가호위(狐假虎威)지 권력 구조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 박근혜는 (아마도 본인은 반대로 생각하겠지만) 한국 보수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대한민국의 융성을 위해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달콤한 권력 유지를 위해 박근혜라는 ‘박정희의 딸’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 말엽, 들여다보면 나라도 아닌 나라였던 시절,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강화도령 이원범을 철종으로 옹립하였던 것과 무에 그리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왕조의 기우는 해가 서산머리에 벌진 황혼녘에 말이다.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층은 근대화의 주체 세력으로서 자부심이 남다르다.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 덕이냐고, 이 정도로 나라를 키운 세력이 누구냐고 ‘헬조선’ 운운하며 수저론을 들먹이는 불만 세력들에게 힘주어 꾸지람하듯 반문한다. 박정희는 70년대 나의 젊은 한 시절을 별로 유쾌하지 못하게 보내도록 강요한 사람이었다. 긴 머리 강제로 잘리기 싫어 파출소를 돌아 집으로 향하던 추억은 그나마 낭만이였다. 그러나 고문으로 죽어가고 고초로 삶이 피폐해졌던 수많은 젊음들은 <겨울 공화국> 시민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래도 나는 어쩌다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이 깔끔한 나라의 과거사에 흠칫하면서도 ‘아 참 발전한 나라구나’하는 복잡한 마음 자락을 감추기 어려웠고 그런 마음의 연장에서 ‘선진국이라면 일본밖에 몰랐을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가 따라 할 모델은 일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가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말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이르고는 하였다. 나의 이런 마음은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서 모래 바람을 들이키며 제철소를 세웠던 박태준의 피맺힌 절규를 듣게 되며 더욱 곱삭아 갔다. “제철소 잘 세워야한다. 이 돈은 우리 백성들이 일제시절 바친 피의 대가로 타낸 대일 청구권 자금이다. 실패하면 다 같이 영일만에 빠져 죽자.”고 하였던 박태준의 그 발언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의 이런 진정성은 1992년 12월 11일 새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이 14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관장들을 영도 <초원> 북극 집에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안 되면 다 같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고 하였을 때 이미 한 움큼도 남지 않고 휘발하였던 것이다. (젊은 세대를 위해 부언하자면, 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직전 비서실장 김기춘이 바로 그 영도다리 김기춘이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며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건전한(?) 애국 보수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NLL이며, 대통령 기록물이며 국정원 댓글이며 애국심이며 지역감정이며 찌라시 가십이며 기타 등등 나라가 어찌되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불법과 탈법을 감수하며 맥시멈으로 동원하여 그것도 간신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지적처럼 그들의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 것은 대충 다 알았으면서도 그리하였다는 사실이다.

판단컨대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이러한 ‘작태’는 대략 두 가지 성분의 혼합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박정희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달콤한 수렴청정(垂簾聽政)의 권력 유혹이다. 돌이켜보면 박정희의 피살 이후 일제 강점기 36년보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 보수는 박정희 마케팅 외에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질풍노도 하에 자고 나면 천지개벽하듯 변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새마을 노래나 틀어대고 박정희 탄신 100주년 굿거리에 동상이나 세우자며 내 보기에는 거의 박정희 행렬이 수준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의

미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며 건국절 논란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수의 허약성과 비전 없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사건들이다. 그들은 박정희의 진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박정희를 넘어서는 시대정신을 창출하는 데 분명 실패하였다. 이른바 대한민국 ‘애국’ 보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만약에 그들이 “영도다리에 다 같이 빠져 죽자”던 그 치졸한 발상을 반성하고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반복하는 역사와 조심스러운 전망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르메르 18일>(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헤겔을 확대 인용하며 인구에 회자되는 저 유명한 언급을 한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笑劇)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질풍노도와 같은 19세기 초중반의 프랑스 정치사를 논할 지면이 아님에도 끝내 이 문장을 버리지 못한 것은 19세기 초반 프랑스와 21세기 초반 우리네 역사가 너무도 유사한 기시감(既視感)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민의 영웅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것이 1815년이었고 정확하게 33년 후 그의 찌질하지만 야심 많은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제2공화정의 주인공인 된 것이 1848년이였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박정희가 피살된 1979년에서 33년이 지난 2012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반복된 역사, 즉, 1815년 영웅의 비극적 종결과 1848년 찌질한 영웅의 등장이라는 소극(笑劇)이 우리네 헌정사에서 너무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소극적(笑劇的) 종결자다. 다만 김재규의 총탄을 최순실이라는 교양 없는 강남 아줌마가 (20세 연하 남자친구가 고삐를 잡은) 말을 타고 대통령 원고를 수정하면서 대신했을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최근 들어 불운의 역사 반복을 방지할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보냈다. 돌이켜 보면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게이트라는 대지진의 전진(前震)이었다. 나는 세월호의 침몰에서 박정희가 구축해 놓았던 시스템의 붕괴를 목도하였다. 관료제며 공인의식이며 언론이며 등등 대한민국의 등뼈가 제대로 이 시스템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진정한 보수라면 정부의 무능으로 제 나라의 피지도 못한 어린 국민이 이리 허망하게 생사를 달린 상황에서 저런 조선일보 논조의 사설을 용인할 수 없고 통곡하며 단식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며 통닭 파티를 여는 그들의 알바 앞잡이를 용서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들이 진정한 보수라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공화주의의 가치 하에서 팽목항 앞바다에 팬티 바람으로 뛰어들어야 마땅하였다. 로마제국의 근간인 공화주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최대의 비극적 영웅 한니발과 벌였던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칸나이 전투에 참여했던 8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6만 명의 시민군과 같이 전사하며 이룩해 낸 정치공동체였다.

내가 대한민국의 보수들에게 권하노니, 살아남고 싶다면 박근혜 앞세운 박정희 앵벌이 마케팅 좀 그만하고 부디 보수의 근간인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기 바란다. 국무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논문 표절이며, 부동산 투기며, 병역 기피며, 국회에서 막말하기며, 대통령에게 알아서 기기인 이 정부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지만 제대로 된 보수의 철학적 근간인 공화주의는 박정희 마케팅 앵벌이들이 하는 짓거리들과 정반대이다.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가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자주적 공민에 의해 제어되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질서에 근거한 평등한 법치주의가 이끄는 정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의 요체인 것이다.

박정희 앵벌이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니 대한민국의 진보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까지도 떠안아야만 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여,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오기는 오겠지만 그리 쉽사리 어느 날 백마 타고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며 지그재그로 서서히 봄이 오듯이, 그리고 따뜻하였다 추웠다를 반복하며 지그재그로 겨울이 오듯이 시국 또한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게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는 한 보수적 경제학자의 언명을 몸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겨울이 오면 봄이 멀 수 있으랴(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는 영국 낭만파 시인 셸리의 절규를 위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족(蛇足): 비극적 소극의 또 다른 주인공들

대통령과 더불어 나를 슬프게 웃겨준 두 캐릭터를 양념삼아 추가한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신문 판매부수 1위의 거대한 권력이다. 대한민국 보수의 기치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서 성공한 이 언론권력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슬프면서도 웃기는 짬뽕이다. 단물이 가시고 쓴맛이 들 즈음하자, 자사(自社)의 이해관계에 따라 박근혜 때리기에 앞장서다가 시위가 명예혁명 수준으로 들불처럼 번지자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은 우습기 짝이 없으면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미분적으로 보면 언론의 정도(正道)를 걷는 듯 보이지만 적분적으로 보면 그 가공할 카멜레온적 변신이 감탄스러우면서도 또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점지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 또한 조선일보 경우와 진배없다. 이게 웬 떡이나 싶어 덩석 물기는 하였는데 너무 뜨거워 삼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뱉기도 싫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짐짓 말장난으로 여유를 부려보는 이 비극적 코미디란! 그가 참여정부에서 좀 잘 나가던 시절 상갓집에서 조우(遭遇)한 적이 있다. 악수를 청해올까 계몽칙해 피하려는 나를 제치고 그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려고 줄 서던 소위 교수란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 또한 못지않게 비극적인 소극이었다.

독자 의견

탁류청론에 나온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관한 의견 개선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일차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자료확충, 즉, 데이터베이스(예: Web of science 등)나 기타 자료 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된 계획으로만 보면 내, 외부 환경 변화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보여 좀 아쉽습니다. 특히 Web of science를 구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Web of science 구독료가 상당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AIMS의 연구업적을 등록할 때나 국가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Web of science를 구독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에 국한하자면 대대적인 별도의 자료 공간 마련 없이는 환경개선 수준일 뿐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검색과 개방된 창의적인 학습공간은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학습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들의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는 휴게공간으로 전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yj263@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그 동안 중앙도서관에 작게 크게 몇 번의 리모델링이 있었습니
다. 몇 년 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
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개선보다 신축 증축이 더욱 필요하
고 이것이 어렵다면 옆으로 확장하는 공간확보가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축

이래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의 수적 증가율과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소식

교수회 소식

2017 교수회 의장 및 감사 선출

10월 31일~11월 14일까지 시행한 <2017 아주대학교수회 의장/감사 선거> 결과 각각 투표가능인원 과반의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장으로 정영기 교수(의과대학), 감사로 윤호섭 교수(자연과학대학), 이윤제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합쳐 71.1%(투표가능인원 603명, 투표 인원 429명)였고 찬성률은 각각 의장 정영기 96.7%, 감사 윤호섭 95.8%, 감사 이윤제 95.8%였습니다.

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끝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
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j263@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노명우(편집책임),
김상배, 박재연, 윤호섭, 이재호